

“막바지 여름휴가 완도로 놀러오세요”

신지·금일 명사십리해수욕장 등 남해안 최고 휴양지 청산·금당도서 여유 만끽 전복·광어 등 먹거리 풍성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전복과 해조류 등 싱싱한 수산물이고 푸른 숲,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완도를 추천한다.
완도에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금일 명사십리해수욕장, 생일 금곡해수욕장, 약산 가사해수욕장, 청산 지리·신흥해수욕장, 보길 예송·중리·통리해수욕장, 소안 미라해수욕장 등 바라만 봐도 마음 탁 트이는 푸른 해변이 곳곳에 있다.

특히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고 있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지난 4월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덴마크에 위치한 국제단체인 환경교육재단(FEE)로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했다.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 해송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는 오는 18일까지 다시마 팔장과 모래찜질, 비치바스켓 체험, 노르딕워킹, 해변요가, 필라테스, 해변댄스, 명상 등 8종의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를 찾았다면 청정바다를 마주하며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섬’만한 곳도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의 섬’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견기 좋은 섬’으로 청산도, ‘풍경 좋은 섬’으로 생일도, ‘신비의 섬’으로 금당도를 꼽았다.

42.19km의 슬로길이 펼쳐져 있는 청산도. 멍 때리기 좋은 생일도, 금당 8경을 품고 있는 금당도도 좋지만 완도에는 크고 작은 265개(유인도 55개, 무인도 210개)의 섬이 있어 섬 여행의 매력을 오롯이 느껴보고 싶다면 완도로 향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완도에는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과 다도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질라인과 모노레일이 있는 완도타워, 보길 운선도 원림, 정소리 구계등, 청해진 유적지 등 두루두루 둘러볼 곳도 많다.
완도는 먹거리도 풍부해서 밀떡여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륨 등 영양분이 많아 여름철 원기회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막바지 여름휴가 피서지로 완도가 주목 받고 있다. 사진은 인파로 북적이는 완도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군 제공

복에 그만인 전복이 있고 명품 광어, 몸속 싱싱한 수산물이 넘쳐난다. 이처럼 완도 미세먼지 배출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여름 휴가지로도 제격이고 꼭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곳이다. /완도=윤보현기자

소상공인 기업 승계 신청자 모집 영광군, 청년 대상 22일까지 접수

영광군이 오는 22일까지 청년 소상공인 기업승계 신청자를 모집한다.
영광군은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사업 활성화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소상공인 기업승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중 2대 이상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만 19~45세)이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시제품 제작, 디자인(포장 디자인 비용), 브랜드 개발, 광고홍보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며 사업장 현장 멘토링을 통해 사업장 점검이 이뤄지고 전문경영을 위한 세무 교육 등이 지원된다. /영광=김동규기자



나주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무료 청력검사 나주시가 운영하는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는 최근 관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청력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소리안보청기 전문가가 방문해 개인면담 및 청력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대부분의 어르신에 정상적인 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제공

영암교육청,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영암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학교 시설관리, 운전, 조리직원 30여명과 함께 ‘2019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현장이 주 근무처인 지방공무원에게 도내 교육기관(전남도국세교육원, 전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방문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과 팀워크 활성화를 통해 협력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여수와 순천 등 시설 견학을 위한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관계자 등과 함께 다양한 현장밀착형 교육 현안들에 대

나주경찰, ‘다사랑 네트워크’ 간담회

외국인과 상생 소통채널 구축 나주경찰서는 최근 나주지역 외국인 집단 거주 농촌 자연부락별 외국인 리더, 마을 이장, 관할파출소와 나주시청, 다문화센터, 경찰보안협력위원회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사랑 네트워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통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들로 인한 불안·불만을 해소하는 목소리가 있어 적극적 방안을 위해 나주경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걱정하는 이유로는 밤늦은 시간에 무리지어 활동하거나 문신한 모습을 드러내고 거리 활보, 쓰레기 불법 투기, 늦은 시각까지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이다.
외국인 리더와 주민들은 “외국인들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민들에 대한 불만, 더 나아가서는 불법 행위로 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석한 마을 대표들은 “농촌지역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길을 모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나주=정종현기자

함평군,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속도

함평군이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훈, 이하 추진위)는 최근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삼락관에서 ‘공원 유치를 위한 의병역사보고 및 군민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행사에는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김갑제 광복회

부지면적만 10만여 평(33만㎡)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가운데 함평은 남일 심수택, 죽봉 김태원, 청봉 김을 형제 등 구한말 호남의병장 6거두(巨頭) 중 3거두가 속한 ‘함평의병 중심지’라는 이점으로 공원 유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상해 임시정부를 이끈 일강 김철, 김석, 안후덕 등의 독립투사가 모두 함평 출신이고 상해 임

정 청사를 그대로 재현해 낸 기념관이 상시 운영 중이라는 점도 유치 과정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지난 5월 김창훈 함평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11명의 유치추진 협의체를 구성, 부지 선정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각 읍·면별로 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료조사와 의병 관련 유물 유구 등을 수집하고 있다.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함평의병의 역사는 호남의병의 결기, 더 나아가 한반도 구국 총흔과 그 궤를 같이 한다”며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반드시 호남(湖南歌) 첫 고을 함평에 유치해 전라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기자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